무더위속 잇단 명승부…송윤준 발굴 수확

〈천안북일고 투수〉

■제 17회 무등기야구대회 결산

천안 북일고의 우승으로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일간의 열전이 마무리 됐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23개 팀은 모교의 명예를 걸고 14~21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계속된 무등기 열전의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한국 야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야구 스타들의 열정적인 플레이도 계속됐다.

고교 초특급 좌완 유창식(광주일고)을 비롯해 윤영삼(장충고), 최현진(충암고), 임찬규(휘문고)는 치열한 마운드 대결로 아마야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외에도 포수 유원선(충암고)과 야수 강경학·문우람(이상 동성고) 백세웅·허일(광주일고), 강병의(충암고), 강진성(경기고), 정진기(화순고) 등 12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무등기에 출격해 모교의 승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깜짝스타'도 탄생했다. 천안 북일고 좌완 송윤준은 이번 대회에서 2.81의 방어율로 3승을 수확하며 북일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투수로 전향한 송윤준은 황금사자기 이후 부상 복귀전이었던 무등기에서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며 스타로 발돋움했다.

서울팀의 강세였다. 이번 대회 8강에는 휘문고, 장충고, 충암고, 경동고, 경기고 등 5개 서울팀이 진출했다. 남은 세 자리는 광주 진흥고, 천안 북일고, 대구 경북고가 차지했다.

지난 21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막을 내린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충암고를 9-6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한 북일고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팀 강세 여전 5개팀 8강에…호남팀 '뒷심'서 완패

유창식·최현진·윤영삼·임찬규 등 '마운드 대결' 백미

기대를 모았던 호남팀들은 뒷심대결에서 완패했다. 16명으로 선수단을 꾸린 약체 전주고가 '우승후보'로 꼽혔던 장충고를 상대로 6-10으로 선전했지만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전주고의 탈락을 시작으로 동성고와 광주일고가 역전패를 당하며 16강에서 탈락했다. 화순고도 최약체로 꼽히는 안산공고에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짐을 쌌다.

시원한 한방은 무등기의 백미가 됐다. 대회 개막날 두 번째 경기에서 대회 1호 홈런이 터져나왔다.

전주고 외야수 강태욱이 14일 장충고 에이스 정다흰을 상대로 투런포를 터트리는 등 개막날에만 두 개의 홈런이 터져나오면서 이번 대회 총 6개의 홈런포가 가동됐다.

스카우트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선수들의 실력이 절정기에 오르는 6월, 인재를 찾기 위한 프로야구 8개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총출동했다.

KIA의 자매 결연팀인 미네소타 트윈스의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를 비롯해 템파베이 데빌레이즈 등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경기장을 찾아 유망주 기량 점검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위기의 KIA 어디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덕아웃이 깊은 침묵에 빠졌다. 잇단 역전패로 뒤숭숭한 KIA 덕아웃에 에이스 윤석민의 손가락 골절 소식에 이어 김동재 수비코치가 쓰러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뼈아픈 3연패를 안고 돌아온 지난 21일 오전 김동재 수비코치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던 김동재 코치는 22일 오전 뇌압이 높아져 긴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KIA는 지난 18일 윤석민이 선발로 나선 SK와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앞서고 있던 9회말 3-4로 역전패를 당했다. KIA의 시즌 12번째 블론세이브였다.

설상가상 9회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남겨두고 강판 된 윤석민은 경기가 끝난 후 락커에 오른손을 내리쳐 새끼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20일에도 선발 서재응이 강판 되면서 글러브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로페즈의 돌출행동을 시작으로 '마인

윤석민 손가락 골절·김동재 뇌경색 위중 등 악재 잇따라

잦은 역전패에 선발진 붕괴…일부 팬들 '감독퇴진운동'도

선수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잇단 실수와 무기력한 플레이로 3연패를 기록했던 선수들은 "우리 때문인 것 같다"면서 죄스러워했다.

주장 김상훈을 비롯해 선수들은 헬멧에 김동재 코치의 백넘버인 87번을 적고 쾌유를 빌었다.

악재가 계속되자 조범현 감독은 22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전체 미팅을 소집했다.

휴식날이었던 서재응까지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날 미팅은 평소보다 오랜 시간 진행됐다.

선수들의 줄부상과 돌출행동에 이어 수비 코치까지 쓰러지면서 KIA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드 컨트롤'에 실패한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KIA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선수단 내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역전패가 계속되면서 일부 팬들은 감독의 책임을 물으며 감독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마운드 엇박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민이 6주 가량 자리를 비워야 하고 박기남도 부상 재발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전력 누수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 미팅을 소집하면서 분위기 추스리기에 나선 KIA는 넥센을 상대로 올시즌 향방을 가늠할 필사의 홈 3연전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 세계랭킹 1위 탈환 나선다

내일 밤 웨그먼스 챔피언십 출격

맹장염 수술을 받은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신지애가 맹장염 수술 때문에 LPGA 투어 2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이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시즌 4승을 챙기며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24일(한국시간) 밤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개막하는 웨그먼스LPGA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은 신지애의 세계랭킹 1위 복귀이자 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는 무대가 됐다.

특히 이 대회는 외식업체 맥도널드가 타이틀 스폰서를 포기한 뒤 유통업체 웨그먼스가 맡아 올부터 대회 이름 앞에 웨그먼스가 붙었다.

하지만 신지애의 몸 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신지애의 아버지 신제섭(50)씨는 "지애가 수술 부위에 아직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 2~3일 전부터 하루 30분 정도 밖에 연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회 개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으며 로커스트힐 골프장은 작년에 신지애가 우승했던 코스다. 지난해 6월 열린 웨그먼스LPGA에서 신지애는 공동 2위 크리스티 맥퍼슨(미국)과 청야니(대만)를 무려 7차타로 따돌리는 완승을 거뒀었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이스쇼 주제는 '내일의 꿈'

7월 23~25일 고양에서 공연

오는 7월 열리는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의 올해 두 번째 아이스쇼 무대의 주제가 '내일의 꿈'으로 정해졌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7월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특설링크에서 펼쳐지는 '삼성 애니콜 하우젠 2010 올댓 스케이트 서머'에서 김연아가 '내일의 꿈'을 주제로 어려움을 딛고 세계 정상에 오른 과정을 담아 미셸 콴 등과 함께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스쇼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24일 오전 10시부터 예매를 시작하며 가격은 SR석 19만8000원, R석 15만4000원, S석 11만원, A석 7만7000원, B석 4만4000원이다.

KB카드로 결제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연아를 비롯해 '피겨 전설' 미셸 콴(미국),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사샤 코헨(미국),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4위 스테판 랑비엘(스위스), 2007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브리앙 주베르(프랑스) 등이 출연해 7월 23일 오후 8시와 24일 오후 5시, 25일 오후 3시, 6시 등 4회에 걸쳐 공연한다. /연합뉴스